

사회복지실천 속 동물매개활동의 윤리적 이슈*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부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본문

1. 동물을 대하는 다양한 윤리적 관점
2. 사회복지실천에 동물을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당위성
3. 동물매개활동 역사와 유형
4. 사회복지 실천 속 동물매개활동의 윤리적 원칙과 고려사항

I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3.06>

* 본 연구는 2021 학년도 한국성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ABSTRACT •

Ethical issues of animal assisted activities in social welfare practice

Associate Prof., Kim, Seongho (Korean Bible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historical exclusion and inclusion of social welfare practices for non-human animals, and ethical issues related to animal-assisted activities. With animals proving that they can provide a wide range of benefits to humans, animals are increasingly being used in various social welfare practices. However, caution should be exercised against the indiscriminate spread of animal-mediated therapy driven solely by human interests and demands. In social welfare practice,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developed based on human welfare, all kinds of animal-assisted activities must start with recognizing animals in the social welfare code of ethics and make more apparent ethical position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history and types of animal-assisted activities after examining various ethical perspectives on how humans treat animals. Then, the meaning of animal-assisted activities in the social welfare practice is discussed. To present the rationale for establishing a code of ethics for animal-assisted activities in social welfare practice, the necessity for ethical operation, the theoretical basis for ethical operation, and ethical issues related to animal-assisted activities, including animal theology or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are considered.

Key words: Social Welfare Ethics, Animal Assisted Activity, Animal Theology, Animal Welfare, Animal Right, Human Animal Bond

I.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인간과 동물의 유대가 상호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동물이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가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실천영역에 포함시켜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동물이 포함되는 경우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유익한 환경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동물을 이용하는 동물매개활동의 윤리적 정당성은 동물을 소유물이나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과 공감하는 지각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은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돌보는 것을 지향해 왔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윤리적 고려는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동물신학자 앤드류 진지는 서구 사회복지의 주요 가치가 인간과 동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인간을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인간중심 사상의 전통에 기인한다고 본다.¹⁾ 이 같은 비판은 동물윤리²⁾와 생태 윤리학³⁾ 진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며 사회복지 실천 속에 동물을 포함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학문적, 실천적 차원에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물론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다양한

1) Ryan, Thomas, *Animals and Social Work: A Moral Introduction* (Houndmills: The Palgrave Macmillan, 2011). 7-8.

2) 동물권 담론을 연 동물해방의 저자 피터 싱어는 인간과 동물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한 기독교의 중차별주의적 사상을 동물학대의 뿌리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3) 린 화이트는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중세 기독교 신학의 오만이 생태의 위기의 원인이라고 했다. White, L.,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155(1967). 1203-1207.

동물매개활동 과정에서 윤리적 사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동물매개활동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유익해야만 하며, 전 과정에서 동물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동물매개활동을 비롯한 동물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 윤리 강령에 사람-동물 유대(Human-Animal Bond, HAB)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 시의 적절하게 갖춰야 할 역량으로 인식되어 그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⁴⁾ 윤리적 이슈는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사명, 정책과 실천의 핵심원리⁵⁾이며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⁶⁾ 사회복지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동물매개활동에 대한 윤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II. 본 문

1. 동물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관점

1) 인간중심주의적 관점

역사적으로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는 주요 사상가들의 사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다수의 사상가들이 동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주장한 근거로 제시된 인간과 동물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이성’의 소유여부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로크, 칸트 등은

4) Wenocur, K., Cabral, R., & Karlovits, J. "Social work for all species: Dual consideration of social work ethics and the human-animal bond," *Perspectives on Social Work*, 14(2018), 66-77.

5) Gerdes, K. E. & Segal, E. "Importance of empathy for social work practice: Integrating new science," *Social Work*, 56(2),(2011). 141-8.

6) Kim, S. H. "미국 NASW 윤리강령의 변화과정 및 2018 개정의 함의," 『생명연구』 47(2018). 209-248.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성의 소유로 보고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성이 없는 동물을 다스리고 이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간, 동물, 식물을 위계적으로 구분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지닌 인간이 이성이 없는 동물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고,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다. 기독교 사상뿐 아니라 서양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16세기 신학자이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은 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고 이외의 자연은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을 위해 사용되도록 창조되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신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고, 인간은 신의 피조물인 자연을 잘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데카르트는 동물을 ‘영혼이 없는 기계’로 비유하며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내는 비명소리는 언어가 아닌 자연적인 동작이며, 시계의 태엽소리 같은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동물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이해하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적 사고는 인간과 인간이외의 생명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며, 인간이외의 모든 생명체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이 다른 동물을 비롯한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따라서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자 고려의 대상이라고 본다. 그 결과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이용하며, 학대와 살생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오늘날 대다수의 현대인에게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2) 동물해방과 동물권

서구 철학과 윤리학이 동물에 대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가 주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감정을 지닌 동물에게 관대하게 대할 것을 주장한 철학자들도 있다. 쇼펜하우어는 동물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같은 존재라고 주장했으며, 흄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동물에게도 이성, 감정, 도덕성이 있다고 보고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갈 수 있는 것은 단지 사회의 덕택이라고 했다. 동물권에 대한 현대적 논의의 장을 연 ‘동물해방’의 저자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가축의 고통이 극대화 되는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고 동물의 전체적인 고통을 줄이는 복지형 축산을 강조했다. 싱어는 쾌락과 고통에 관한 이익은 인간과 비인간동물 모두에게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동물의 복지를 외면하는 것은 종차별주의(Speciesism)에 해당된다.⁷⁾ 톰 리건은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⁸⁾

최근 들어 동물권 윤리의 근거를 이성 중심의 남성가부장적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돌봄윤리(care ethic)가 페미니스트 윤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캐롤 길리건이나 조세핀 도너번 등 돌봄윤리학자들은 음식, 물, 피난처 및 안전 등 기본적인 생물학적 필요는 물론 감정, 지능, 소속감 등과 같은 속성을 인간과 (일부) 공유하고 있는 동물에게 공감(sympathy)을 보여야 하며, 이러한 공감은 도덕적으로 의무적이라고 주장한다.⁹⁾ 도나 해러웨이는 남성-여성, 인간-동물, 유기체-기계 같은 이분법적 질서를 해체하고 지구의 모든 인간과 비인간 거주자들과 맺는 관계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이 관계의 변화를 위해 인간은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반려종과 공-산(共-産), 공-생(共-生)하는 삶의 양식을 회복해야 하는데¹⁰⁾ ‘반려종의

7) Singer, Peter, *Animal Liberation*. 김성한 역. 『동물해방』 (서울: 연암서가, 2012), 11.

8) Regan, T., “A case for animal rights,” *Advances in animal welfare science*, 3(1987), 179-189.

9) Engster, Daniel, “Care ethics and animal welfare,”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37(4)(2006), 521-536.

10) Haraway, Dona, *Staying with the Trouble*.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서울:

관점에서 인류가 비인간 타자들과의 책임 있는 관계 맺기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한다.¹¹⁾

3) 기독교 윤리적 관점 및 동물 신학

동물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실천에 대해 기독교 윤리적 관점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데 그 이유는 기독교 사상이 사회복지 역사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해온 인간중심주의적 기독교 신학이 동물학대와 착취의 원인이라는 비판과는 달리, 동물을 인간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식하고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주장해온 전통이 있다. 막시무스(Maximus, 580-662)의 로고이 신학(Logoi Theology)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기초하여 각각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막시무스 신학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단순한 동물보호의 책임을 넘어서 본유적 가치를 지닌 동물이 하나님의 근원적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실현해 나가도록 인간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을 진다.¹²⁾ 베네딕토회 수녀원장 힐데가르트(Hildegard, 1098-1179)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서 일치와 사랑을 공유하듯이 창조세계는 뗄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의 결합으로, 인간과 자연의 분리는 잘못되었다고 가르친다.¹³⁾ 인간과 동물을 비롯한 창조주의 생태

마농지, 2021).

11) 김애령, “다른 세계화의 가능성: 헤러웨이의 「반려종 선언」 읽기,” 『코기토』92(2020), 27-35.

12) 김은혜,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동물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책임,” 『장신논단』53-5(2021), 149-177.

13) 유정원, “빙엔의 힐데가르트와 아씨의 프란치스코의 생태영성,”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62(2014), 273-297.

계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위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알려진 아시시(Assisi)의 성인 프란체스코(St. Francesco)¹⁴⁾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인격적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이다.¹⁵⁾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틀 목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지배권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동물들에 대한 소유권 보다는 동물들을 책임 있게 보살필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¹⁶⁾ ‘동물신학’의 저자인 앤드류 린지는 동물도 인간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창조주가 부여한 정당한 권리, 즉 신적권리(theos-rights)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동물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존중받아 마땅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 린지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 차이가 차별이나 착취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동물에 대한 도덕적 배려의 원리가 되며, 이것이 모두를 위한 정의라고 주장한다.¹⁷⁾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5년 환경에 관한 회칙 “찬미 받으소서(Laudato Si)”에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거부해야 하며 모든 피조물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을 사랑과 존경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다.¹⁸⁾

14) 198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성 프란체스코를 동물 수호성인으로 선포한 바 있으며, 세계동물의 날로 기념하는 그의 축일(10월 4일)에 드러지는 예배는 동물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은 성공회와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이어지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15) 민성기, “프란치스코와 자연 그리고 보편적 형제애,” 『신학전망』 겨울호(1998), 55-56.

16) Stott, John. *Issues facing Christian Today*. 정옥배 역,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고양: IVP, 2011).

17) Rinzey, Andrew. *Animal Theology*, 장윤재 역,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신학의 탐구』 (대전: 대장간, 2014).

18) Animal Interfaith Alliance, “Pope Francis Rejects the Notion of Domination over Other Creatures”, 2015. 07. 15. 10 <https://animal-interfaith-alliance.com/2015/07/>

2. 사회복지실천에 동물을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당위성

1) 사회복지실천에 동물을 포함시켜야 하는 역사적 당위성

미국을 비롯한 사회복지 선진국들에서는 약 20여 년 전부터 사회복지와 동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논문이 소개되고 있으며, 수의사회사업(Veterinary Social Work)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사회복지 대학원 정규 과정에 동물을 포함한 사회복지 실천 과목이나 특화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듯 2022년 3월 웰스와 지속가능한 발전(Towards One Health &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개최된 세계 사회복지 및 사회과학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Work & Sciences)의 세부 주제의 상당수는 동물의 보건, 동물복지, 동물윤리를 다루었다.¹⁹⁾

이처럼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동물을 주요 주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변화인 것 같지만 동물복지 혹은 동물권 운동의 기원은 미국과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영국과 미국에서 기독교 사상은 사회복지역사에서 사회복지전문직의 발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복지 윤리와 실천 방법에 토대를 제공했는데²⁰⁾ 실제로 동물복지의 선구자들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이었으며 그들은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의 관계에 중점을 둔 사회복지의 영역을 확장했다.²¹⁾

10/pope-francis-rejects-the-notion-of-domination-over-other-creatures/

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Work & Sciences - Towards One Health & Sustainable Development 2022. <https://sites.google.com/view/worldsocialworkday2022>.

20) Vanderwoerd, J. R., "Reconsidering Secularization and Recovering Christianity in Social Work History," *Social Work & Christianity*, 38-3(2011), 244-266.

21) Ryan, Thomas, *Animals and social work: A moral introduction*.

2) 사회복지실천에 동물을 포함시켜야 하는 이론적 당위성

사회복지 실천에 동물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의 대표적인 관점인 생태체계적 관점(ecosystem perspective)은 생태학의 개념과 일반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결합한 것으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Person in Environment) 관점을 중요시한다. 이 관점은 인간은 환경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환경을 창조해 내는 주체로써 환경적인 힘과 상황들에 의해 조절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²²⁾ 그렇다면 환경 속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간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인간 존재는 다름 아닌 동물일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비인간 동물을 사회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족 시스템 이론(Family System Theory)에 있어서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대다수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김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은 마주하는 가족 체계 안에서 반려동물이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²³⁾ 사회복지사는 가족의 감정 체계에서 반려동물의 역할과 클라이언트²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가족 시스템에서 역동적인 역할을 하는 반려동물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가족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²⁵⁾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가족구조 속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역동은

22) Darling, N., "Ecological systems theory: The person in the center of the circles,"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4(2007), 203-217.

23) Duffey, T., "Saying Goodbye," *Journal of Creativity in Mental Health*, 1(2005), 287-295.

24)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Client)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혹은 이용자를 의미한다.

대단히 크다.²⁶⁾ 셋째, 클라이언트의 자원, 역량, 지식, 능력, 동기, 경험 그리고 다른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강점관점(Strengths Perspectives)²⁷⁾에서 볼 때, HAB는 클라이언트가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자살을 예방하는 힘이 되고²⁸⁾, 노숙인, 출소자, 독거노인 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²⁹⁾ 이외에도 HAB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증진 시키며³⁰⁾ “원 헬스와 원 웰페어(One Health & One World)³¹⁾” 전략은 기아, 보건, 기후위기 등 주요 문제에 대응하는데 기여하여 인간과 동물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³²⁾

-
- 25) Leow, C., “It’s not just a dog: The role of companion animals in the family’s emotional system,” (Thesis,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2018).
- 26) Taylor, N., Fraser, H., & Riggs, D. W., “Theoretical research: Companion animal inclusive domestic violence practice: Implications for service delivery and social work,” *Aotearoa New Zealand Social Work*, 32-4(2020), 26-39.
- 27) Weick, A., Rapp, C., Sullivan, W. P., & Kisthardt, W., “A Strengths Perspective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34-4(1989), 350-354.
- 28) Douglas, V. J., Kwan, M. Y., Gordon, K. H., “Pet Attachment and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Crisis: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021), 152-180.
- 29) Walsh, F. “Human-animal bonds I: the relational significance of companion animals,” *Family Process*,” 48-4(2013), 462-480.
- 30) 사회적 자본은 커뮤니티 내 거주자 간의 사회적 결속, 개인 투자, 호혜성, 시민 참여 및 대인 신뢰를 구축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 반려동물 소유는 지역사회내의 사회적 접촉 및 상호 작용, 이웃 친화등 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ood L., Giles-Corti, B., & Bulsara, M. “The pet connection: Pets as a conduit for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 Medicine*, 61-6(2005), 1159-1173.
- 31) 원 헬스(One Health)는 사람·동물·생태계(환경)의 건강이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상호의존관계에 있다는 개념으로 인류의 보건 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접근법이다. 원 헬스 접근 방식을 확장한 원 웰페어(One Welfare) 개념은 동물 복지, 인간 복지 및 환경 간의 상호 연결을 강조한다.
- 32) Pinillos, R.G., Appleby, M. C., Manteca, X., Scott-Park, F., Smith, C., & Velarde, A. “One Welfare - a platform for improving human and animal welfare,” *The Veterinary record*, 179-16(2016), 412-413.

3) 사회복지실천에 동물을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당위성

현재 호주³³⁾를 제외한 서구 주요 복지국가들의 사회복지윤리강령을 살펴보면 인간에 대한 존중, 사회정의, 전문직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동물은 제외되어 있다. 국제사회복지사 연맹에서 제시한 윤리강령의 어느 부분에도 동물에 대한 언급은 없다.³⁴⁾ 그러나 사회복지 윤리의 핵심 가치인 서비스(service), 사회 정의(social justice), 관계의 중요성(importance of relationships), 존엄성과 가치(dignity and worth), 성실성(integrity), 역량(competence) 등의 핵심 가치는 사회복지실천 대상자들이 소유한 반려 동물의 역할과 동물과 관련된 사회복지 실천의 혜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³⁵⁾

사회복지실천에 동물을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첫 번째 당위성은 사회복지의 주요 임무는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윤리 강령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돕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사람들을 돕는 과정의 파트너로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이점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고,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긍정적인 관계를 극대화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업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은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를 존중해야 한다.³⁶⁾ 둘째, 사회복지사는 사회의 다양성(diversities in broader society)을

33) 호주 사회사업가연합 윤리강령(Australi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Code of Ethics)은 “사회사업실천의 일부로 참여하는 모든 동물이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ensure that any animal engaged as part of social work practice is protected)는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34)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 (2014). <https://sites.google.com/view/worldsocialworkday2022>.

35) Wenocur, K., Cabral, R., & Karlovits, J. 같은 책.

증진시켜야 한다. 사회의 다양성에는 인종, 민족, 출신국,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나이, 결혼상태, 정치적 신념, 종교, 이민 신분, 신체적/정신적 장애, 종교, 취향, 선호도 등이 포함되는데 동물에 대한 경험과 태도는 클라이언트의 라이프 스타일과 사회적 경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측면이다.³⁷⁾ 셋째,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는 비인간 동물이다. 이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하고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반대해 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인간중심주의에 근거한 종 차별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확산되고 있다. 동물은 물건이나 재산이 아닌 쾌고감수성이 있는 존재(sentient beings)로 반억압 사회복지 패러다임(anti-oppressive social work paradigm)에 근거하여 그들의 복지권과 권리를 옹호해야 하는 것이다.³⁸⁾

3. 동물매개활동의 역사 및 유형

1) 동물매개활동의 역사

동물은 역사 전반에 걸쳐 인간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 왔는데, 동물매개치료 혹은 활동의 역사는 멀리 고대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선사시대의 벽화에는 인간과 늑대개가 불가에서 함께 춤을 추는 그림이 발견되고 이집트의 무덤에는 망자가 사랑했던 반려동물의 그림으로 덮여 있거나 함께 매장되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물이 치유의

36) Risley-Curtiss, C., "Social work practitioners and the human-companion animal bond: A national study," *Social Work*, 55-1(2010), 38-46.

37) 위의 글, 257-268.

38) Hanrahan, C. "Challenging Anthropocentrism in Social Work Through Ethics and Spirituality: Lessons from Studies in Human-Animal Bonds," *Journal of Religion & Spirituality in Social Work: Social Thought*, 30-3(2011), 272-293.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최초의 동물매개치료 사례는 1792년 영국의 윌리엄 투크가 수용소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하여 토끼와 새 등을 직접 사육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⁹⁾ 이외에도 1859년 백의의 천사로 알려진 나이팅게일이 간호일지에서 “정신 병원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성인의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으며 작은 동물과 함께 있으면 환자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동물매개치료에 대해 기록한 부분이 있다.⁴⁰⁾ 좀 더 최근의 역사를 살펴보면 1919년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동물이 참전군인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전쟁피로증후군(battle fatigue syndrome) 치료에 이용되기도 했다.⁴¹⁾ 한편 프로이드가 반려견을 이용한 동물매개치료의 선구자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프로이드가 특별한 감각이 있다고 믿은 자신의 반려견 조피를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활용하는 등 정신 상담을 동물매개치료와 병합하여 수행한 것에 유래한다.⁴²⁾

공식적으로 ‘pet therapy(반려동물 매개 치료)’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60년대 초반, 개를 이용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치료를 진행한 내용을 기술한 것에서 유래한다. 미국의 소아정신과 의사인 보리스 레빈슨 박사가 정신 요법 세션 중에 불안증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린 환자들이 자신의 반려견 징글스와 의사소통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이후 레빈슨 박사는 개와 어린환자들이 소통하는 집합적 경

39) Hooker, S. D., Holbrook F. L., & Stewart, P.W., “Pet Therapy Research: A Historical Review,” *Holistic Nursing Practice*, 17(2002), 17-23.

40) Connor K, & Miller J. “Animal assisted therapy: an in-depth look,” *Dimensions of critical care nursing*, 19-3(2000), 20-26.

41) Altschuler, E. L. “Animal-Assisted Therapy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Lessons from “Case Reports” in Media Stories,” *Military Medicine*, 183(2018), 11-13.

42) ‘Cognitive-behavioral therapy: a case report, animal-assisted therapy’. *MedScape* 2006. 10. 12.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545439_3,

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동물매개치료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다.⁴³⁾ 1970년대 들어서 코어슨 박사가 발표한 보조 중재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정신보건학계가 동물매개활동의 가치를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⁴⁴⁾

체계적인 동물매개치료(Animal Assisted Therapy, AAT)는 1988년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의 많은 병원들이 동물매개치료사들과 함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⁴⁵⁾ 동물 매개치료 전문 기관인 델타 소사이어티(Delta Society)는 1989년 동물이 AAT를 제공하는 데 능숙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⁴⁶⁾ 델타 소사이어티의 AAT 인증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권장 사항은 현재 미국 전역의 요양원, 재활 센터 및 병원을 포함한 많은 의료 시설에서에서 AAT 치료 개입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14년 신설된 미국 테네시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수의사회사업(Veterinary Social Work)과정은 동물보조개입(Animal Assisted Interaction, AAI)을 주요 영역 중 하나로 교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20년 전부터 대학 및 대학원에 동물매개활동을 다

43) *Psychology Today*. "How therapy dogs almost never came to exist," (2013.02. 12). <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canine-corner/201302/how-therapy-dogs>

44) Corson, S. A., Corson, E.O., & Gwynne, P.H. "Pet-facilitated psychotherapy" Anderson, R.S., Ed. *Pet Animals and Society*, (London: Baillière Tindall, 1975), 19-36.

45) Ernesr L., "Animal-Assisted Therapy: An Exploration of Its History, Healing Benefits, and How Skilled Nursing Facilities Can Set Up Programs," *Annals of Long-Term Care*, 22-10(2014), 27-32.

46) 현재는 Pet Partners로 명칭을 변경했다.

루는 학과들이 신설되면서 관련 논문과 저술 등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동물매개활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나 기구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⁴⁷⁾ 국내의 동물매개치료는 1990년 한국동물병원협회가 시행한 ‘동물은 내 친구’ 활동을 시작으로 1992년 이삭애견훈련소의 장애인도우미견 훈련과 보급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1994년 삼성화재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가 설립되고, 2002년 삼성 치료도우미견센터가 발족했다. 교육 및 학술 영역에서는 2008년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에 동물매개치료 전공이 설립되고 같은 해 9월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가 설립되었으며,⁴⁸⁾ 2014년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동물매개치료 전공 석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학술적 교류와 연구와 전문가 육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대학교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신설되며 동물매개활동을 주요 과정으로 교육하고 있다. 국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동물매개활동에 대한 적용과 연구는 아직 미흡하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은 크다.⁴⁹⁾

2) 동물매개활동의 유형

동물매개치료는 오늘날 보다 전문적인 분야에 적용되어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는데 그 목적과 시행자의 전문성, 그리고 동물의 개입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⁵⁰⁾ 첫째, 동물보조개입(AAI)은 건강 증진 및 치료를 위해 건강, 교육 및 인간 서비스에 동물을 의도적으로 포함시

47) 백승희, 최승희, “동물매개치료의 사회복지실천에의 적용 가능성 - 국내 프로그램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슈퍼비전과 실천연구』5(2020), 61-97.

48) 김옥진, “동물매개치료의 역사와 현황,” 『대한수의사회지』48-8(2012), 497-499.

49) 백승희, 최승희, “동물매개치료의 사회복지실천에의 적용 가능성 - 국내 프로그램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앞의 글.

50) Arbour, R., Signal, T. & Taylor, N. “Teaching kindness: The promise of humane education,” *Society & Animals*, 17(2009), 136-48.

키는 목표 지향적이고 구조화된 중재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동물보조치료, 동물보조교육, 그리고 동물보호교육 등의 동물을 보조 혹은 매개로 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에서 동물은 자원봉사자의 반려동물로서 혹은 전문가의 지시에 따르는 팀의 요원으로서 활동한다. 둘째, 동물보조치료(AAT)는 글자 그대로 치료를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환자나 질병의 종류, 특성, 심각성에 따라 의사, 직업 치료사, 물리 치료사, 공인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간호사, 사회 복지사, 언어 치료사 또는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수행한다. AAT는 환자를 치료하고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지닌 개입이다. 따라서 AAT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의료·치료 전문가들이 직접, 혹은 지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치료의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는지 그리고 그 치료의 효과는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동물보조교육(Animal Assisted Education, AAE)은 일반교육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가 교육적인 목적을 갖고 수행하는 목표지향적이며 구조적인 동물매개 활동이다. 일반적으로는 동물매개활동에 관한 지식, 기술, 경험이 있다면 일반 교사에 의해 수행될 수 있지만,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AAT가 치료의 목적을 갖고, AAE가 교육의 목적을 갖는 것과는 달리 동물보조활동(Animal-Assisted Activities, AAA)는 동물을 매개로 하여 위로, 교감, 동기부여, 레크리에이션 등 참가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AAA는 전문가뿐 아니라 동물매개관련 교육과 훈련을 받은 준전문가나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다섯째, 동물보조위기대응(Animal-Assisted Crisis Response, AACR)은 자연재해나 인생의 위기, 혹은 사고 등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동물 보조 활동이다. AACR은 특히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기개입 전문가들이 관계를 구축하고 라포(rapport)⁵¹⁾를 형성할 때 동물이 주는 친근함, 안정감, 신뢰성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외에도 동물을 매개로 하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동료 간의 상호작용과 신뢰수준을 높이는 직장 내 동물매개복지(Animal-Assisted Workplace Well-being, AAWW)나 특정한 활동을 규정하지 않은 채 동물과 편하게 어떤 종류의 활동이라도 인간과 동물 간의 유대관계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관련 참여(Animal-Related Engagement, ARE)도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수십 년 전부터 동물매개 프로그램을 지칭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었으며 정확한 의미와 목적, 그리고 자격 조건 등을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양한 동물매개활동에 대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각 활동의 목적을 상기하고 반드시 그 목적에 맞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활동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회복지 실천 속 동물매개활동의 윤리적 원칙과 고려사항

1) 사회복지 실천 속 동물매개활동의 윤리적 원칙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동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윤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 시작은 동물을 소유물이나 도구가 아니라 지각 있는 존재로 이해하는 데 달려 있다. 왜냐하면 동물이 오로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51)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친근감과 상호신뢰관계를 말하는 임상사회복지학 용어이다.

면, 인간이 ‘사용’하는 경우의 윤리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돕기 위한 치료 개입에 동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윤리적이고 합법적인지 여부를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이다.⁵²⁾

둘째, 인간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하고 보장해야 한다. 동물매개활동의 목적은 동물을 사용하여 인간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은 매개활동에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착취될 수 있다. 동물매개활동 제공자는 함께 일하는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Do No Harm)”는 원칙을 확장할 도덕적, 윤리적 의무가 있다.⁵³⁾

셋째, 동물매개 활동이 인간의 이익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과 동물의 이익은 상호 배타적일 필요가 없으며, 반대로 호혜적이어야 한다. 동물이 인간 파트너와 적절하게 짝을 이루지 못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불안を 겪을 수 있고 이는 상호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 결과 부적절한 동물매개활동이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⁵⁴⁾ HAB에 근거한 동물매개활동이라면 모두에게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활동에 관련된 동물에게 이롭지 않다면 인간에게도 유익한 치료가 되지 않을 것이다.

2) 사회복지 실천 속 동물매개활동의 윤리적 고려사항

모든 종류의 동물매개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며 전 과정에서 동물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어

52) Zamir, T., “The moral basis of animal-assisted therapy,” *Society & Animals*, 14-2(2006), 180-99.

53) Winkle, M., Johnson, A., & Mills, D., “Dog Welfare, Well-Being and Behavior: Considerations for Selection, Evaluation and Suitability for Animal-Assisted Therapy,” *Animals*. 10(2020), 2188.

54) 위의 글.

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속에서 수행되는 동물매개활동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동물매개활동에 참여 또는 동원되는 동물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동물매개활동에 참여하는 동물들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좋아해야 하며, 개별적인 적합성에 따른 선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각종 매개활동에 참여하는 동물들의 적합성과 자발성 평가는 동물의 활동 기간 동안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물매개활동 적합성 평가 시 실무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나 선호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프거나, 다친 곳이 있거나, 노쇠한 동물들을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동물매개활동이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하고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초대해야 하며 동물매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활동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혜택과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리고 참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 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삶에서 동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거의 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나 알레르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동물매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차이를 염두에 두어 자신의 전문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언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클라이언트가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해야 한다.⁵⁵⁾

셋째, 동물매개활동에 참여한 동물들의 복지를 인간을 대상으로 한 복지와 혜택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이 매개활동의 스트레스를 참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동물들이 참여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동물보조개입(AAI)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55) Wenocur, K., Cabral, R., & Karlovits, J. "Social work for all species: Dual consideration of social work ethics and the human-animal bond", 앞의 글.

주로 인간의 건강 결과를 다루었고 동물의 경험을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다. 동물매개활동에 동원되는 동물의 복지에 대한 수동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와 잠재적인 복지 위협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활동의 빈도와 기간, 새로운 환경, 통제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를 조절해야 한다.⁵⁶⁾ 또한 동물매개활동에 참여하는 동물들의 중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 척도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물매개활동에 참여하는 동물매개활동가(혹은 핸들러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실질적이어야 하며 단기간의 워크숍이나 온라인 강의로는 부족하다. 동물매개활동가의 자격요건, 자격증 취득과정과 보수교육 제공 등은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동물매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동물 윤리 교육을 받도록 명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동물매개활동을 기획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복지 윤리 강령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동물매개활동과 관련된 자신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전문가와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동물매개활동을 위해서는 윤리학, 동물 행동학, 수의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학제 간 접근과 증거에 근거한(evidence based) 연구와 시행이 필요하다.⁵⁷⁾

56) Glenk, L. M., "Current Perspectives on Therapy Dog Welfare in Animal-Assisted Interventions. *Animals*," *MDPI*, 7-2(2017), 7.

57) Compitus, Katherine, "The process of integrating animal-assisted therapy into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49-1(2021), 1-9.

III. 나가는 말

동물매개활동을 비롯한 동물을 이용하는 활동이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물매개활동과 관련된 단체나 업계에서 인정되는 윤리강령, 교육 및 실무 표준, 복지 지침과 핸들러에 대한 표준화된 자격 규정 및 교육의무사항은 부재하거나 미흡하다. 그리고 동물매개활동에 동원되는 동물의 기질에 대한 표준과 동물의 노동조건(시간, 휴식, 나이, 건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혹은 미흡)하며 매개활동에서 퇴직하는 동물의 복지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현실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현장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 분야를 비롯한 여러 전문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유형의 동물매개활동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동물매개활동을 비롯하여 동물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실천 윤리를 확립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동물이 여전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거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의 전통 속에는 동물을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이론적, 윤리적 당위성이 내재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전문직 사회복지실천의 윤리강령과 실천을 강조해온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동물매개활동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동물매개활동 과정에서 사람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사람을 치료하고 유익을 주는 동물들은 사람 못지않게 기쁨과 고통을 느끼는(쾌고감수능력이 있는) 생명체이다. HAB에 근거한 동물매개활동이라면 모두에게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활동에 관련된 동물에게 이롭지 않다면 인간에게도 유익한 치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사람과 동등한 참가자로

서 자신의 본성을 누리고 기능을 발휘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심각한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관 속에 숨어있는 폭력적인 인간중심주의를 되돌아보고 올바른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동물과 사람에게 모두 유익한 사회복지 실천은 물론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애령. “다른 세계화의 가능성: 해러웨이의 「반려종 선언」 읽기.” 『코기토』92 (2020). 27-35.
- 김옥진. “동물매개치료의 역사와 현황.” 『대한수의사회지』48-8(2012). 497-499.
- 김은혜.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동물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책임.” 『장신논단』53-5(2021). 149-177.
- 민성기. “프란치스코와 자연 그리고 보편적 형제애.” 『신학전망』겨울호(1998). 55-56.
- 백승희, 최승희. “동물매개치료의 사회복지실천에의 적용 가능성 - 국내 프로그램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슈퍼비전과 실천연구』5(2020). 61-97.
- 유정원. “빙엔의 힐데가르트와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의 생태영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62(2014). 273-297.
- Kim, S. H. “미국 NASW 윤리강령의 변화과정 및 2018 개정의 함의.” 『생명연구』47(2018). 209-248.
- Haraway, Dona. *Staying with the Trouble*. 최유미 역. 『트리블과 함께하기』. (서울:마농지, 2021).
- Singer, Peter. *Animal Liberation*. 김성한 역. 『동물해방』 (서울: 연암서가, 2012).
- Stott, John. *Issues facing Christian Today*. 정옥배 역.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고양: IVP, 2011).
- Rinzev, Andrew. *Animal Theology*, 장윤재 역.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신학의 탐구』 (대전: 대장간, 2014).
- Altschuler, E. L. “Animal-Assisted Therapy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Lessons from “Case Reports” in Media Stories. *Military Medicine*. 183(2018). 11-13.
- Arbour, R., Signal, T., & Taylor, N. “Teaching kindness: The promise of humane education.” *Society & Animals*. 17(2009). 136-48.
- Compitus, K. “The process of integrating animal-assisted therapy into clinical

- social work practic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49-1(2021). 1-9.
- Connor, K., & Miller J. “Animal assisted therapy: an in-depth look,” *Dimensions of critical care nursing*, 19-3(2000), 20-26.
- Corson, S. A., Corson, E. O., & Gwynne, P. H. “Pet-facilitated psychotherapy” in: Anderson, R.S., Ed. *Pet Animals and Society* (London: Baillière Tindall, 1975).
- Darling, N. “Ecological systems theory: The person in the center of the circles.”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4(2007), 203-217.
- Douglas, V. J, Kwan M. Y., & Gordon, K. H. “Pet Attachment and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Crisis: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021). 152-180.
- Duffey, T. “Saying Goodbye.” *Journal of Creativity in Mental Health*. 1(2005), 287-295.
- Engster, D. “Care ethics and animal welfare,”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37-4(2006). 521-536.
- Ernesr L. “Animal-Assisted Therapy: An Exploration of Its History, Healing Benefits, and How Skilled Nursing Facilities Can Set Up Programs.” *Annals of Long-Term Care*. 22-10(2014). 27-32.
- Gerdes, K. E., & Segal, E. “Importance of empathy for social work practice: Integrating new science.” *Social Work*. 56-2(2011), 141-8.
- Glenk L. M. “Current Perspectives on Therapy Dog Welfare in Animal-Assisted Interventions, Animals,” *MDPI*. 7(2017). 1-17.
- Hanrahan, C. “Challenging Anthropocentrism in Social Work Through Ethics and Spirituality: Lessons from Studies in Human-Animal Bonds,” *Journal of Religion & Spirituality in Social Work: Social Thought*. 30-3(2011). 272-293.
- Hooker, S. D., Holbrook F. L., & Stewart, P. W. “Pet Therapy Research: A Historical Review.” *Holistic Nursing Practice*. 17(2002), 17-23.
- Leow, C. “It’s not just a dog: The role of companion animals in the family’s emotional system,” (Thesis,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2018).
- Pinillos, R. G., Appleby, M. C., Manteca, X., Scott-Park, F., Smith, C., & Velarde, A. “One Welfare - a platform for improving human and animal

- welfare." *The Veterinary record*. 179-16(2016). 412-413.
- Regan, T. "A case for animal rights." *Advances in animal welfare science*. 3(1987). 179-189.
- Risley-Curtiss, C. "Social work practitioners and the human-companion animal bond: A national study." *Social Work*. 55-1(2010). 38-46.
- Risley-Curtiss, C., Holley, L. C., & Wolf, S. "The animal-human bond and ethnic diversity." *Social Work*. 51-3(2006). 257-268.
- Ryan, T. *Animals and social work: A moral introduction*. (New York, Palgrave McMillan, 2011).
- Taylor, N., Fraser, H., & Riggs, D. W. "Theoretical research: Companion animal inclusive domestic violence practice: Implications for service delivery and social work." *Aotearoa New Zealand Social Work*. 32-4(2020). 26-39.
- Vanderwoerd, J. R. "Reconsidering Secularization and Recovering Christianity in Social Work History." *Social Work & Christianity*. 38-3(2011). 244-266.
- Walsh, F. "Human-animal bonds I: the relational significance of companion animals." *Family Process*. 48-4(2013). 462-480.
- Weick, A., Rapp, C., Sullivan, W. P., & Kisthardt, W. "A Strengths Perspective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34-4(1989). 350-354.
- Wenocur, K., Cabral, R., & Karlovits, J. "Social work for all species: Dual consideration of social work ethics and the human-animal bond." *Perspectives on Social Work*. 14(2018). 66-77.
- White, L.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155(1967). 1203-1207.
- Winkle, M, Johnson, A., & Mills, D. "Dog Welfare, Well-Being and Behavior: Considerations for Selection, Evaluation and Suitability for Animal-Assisted Therapy." *Animals*. 10(2020), 2188-2203.
- Wood, L., Giles-Corti, B., & Bulsara, M. "The pet connection: Pets as a conduit for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 Medicine*. 61-6(2005). 1159-1173.
- Zamir, T. "The moral basis of animal-assisted therapy." *Society & Animals*. 14-2(2006). 180-99.

- Animal Interfaith Alliance. Pope Francis Rejects the Notion of Domination over Other Creatures. (2015. 07. 15.) 최종접속일: 2022. 08. 10. <https://animal-interfaith-alliance.com/2015/07/10/pope-francis-rejects-the-notion-of-domination-over-other-creatures/> 최종접속일: 2022. 08. 10.
- Cognitive-behavioral therapy: a case report, animal-assisted therapy'. 『MedScape』 (2006. 10. 12.)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545439_3, 최종접속일: 2022. 08. 10.
- Psychology Today*. "How therapy dogs almost never came to exist,". [psychologytoday.com](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canine-corner/201302/how-therapy-dogs-almost-never-came-to-exist). (2013. 02. 12). <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canine-corner/201302/how-therapy-dogs-almost-never-came-to-exist> 최종접속일: 2022. 08. 10.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Work & Sciences - Towards One Health & Sustainable Development 2022. <https://sites.google.com/view/worldsocialworkday2022>. 최종접속일: 2022. 08. 10.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 (2014). <https://www.ifsw.org/what-is-social-work/global-definition-of-social-work/> 최종접속일: 2022. 08. 10.

논문투고일: 2022년 07월 15일

심사개시일: 2022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 2022년 08월 16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비인간 동물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배경과 포함, 그리고 동물매개활동에 대한 윤리적 이슈에 대해 탐구했다. 동물이 인간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가운데 동물은 다양한 사회복지 환경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인간의 관심과 이익에만 의해 주도되는 동물매개치료의 무분별한 확산에 주의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복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사회복지 실천에서 모든 종류의 동물매개활동은 사회복지 윤리강령에서 동물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보다 분명한 윤리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다양한 윤리적 관점을 살펴본 뒤, 동물매개활동의 역사와 유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회복지실천 속에서 동물매개활동이 갖는 의미를 논하고, 사회복지실천 속 동물매개치료의 윤리강령 수립 근거 및 필요성과 윤리적 운영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동물신학 혹은 기독교 윤리적 관점을 포함한 동물매개활동에 대한 윤리적 이슈를 고찰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동물과 사람 모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지켜져야 할 동물매개활동의 윤리적 원칙과 고려사항들을 제시했다.

주제어: 동물매개활동, 사회복지윤리, 동물윤리, 동물권, 동물신학, 동물인간유대
